

서원, 신실하게 지키기 약속

민수기 30:1~16

【인도자를 위한 예화】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각각 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을 통해 신앙의 씨앗 세 가지가 어린 마음에 뿌려졌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 둘째,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나 류태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셋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어린 시절 내 마음 지성소에 뿌려진 이 세 가지 씨앗은 일평생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나를 키워 준 원동력이 되었다.

가난한 농촌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한 내가 덴마크 유학을 결심하고 이룬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농촌에 대한 논문을 써라', '유학을 위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라는 마음을 주셨다. 또 기적같이 덴마크로 가서 언어를 배울 때도, 기도 중에 덴마크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를 흉내 내면 되겠다는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문장을 외웠고, 3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 심령의 지성소에 새겨진 씨앗으로 인해 그 모든 일이 실현될 수 있었다. - 류태영,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비전과리더십)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약속)을 하고 지킨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는 레위기(레 27:1~34)와 민수기(민 6:1~21)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실인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된 각종 절기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제도가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면, 이어지는 30장에 기록된 서원에 대한 제도는 신앙의 내면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원이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한 수동적인 순종을 넘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예물로 드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인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규례는 백성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던 만큼, 백성은 이러한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이 율법에 대한 집행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레위인에게만 위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여성의 서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례를 다룹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나요?(1~2절)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사람'으로 번역된 '이쉬'는 여성을 의미하는 '이쉬'의 상대 개념인 '남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6절에서는 '남편'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별을 구별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일반 사람 누구든지’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는 남녀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구속력과 이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신 23:21; 전 5:4). 하지만 성경은 서원을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제로 강요하지 않습니다(신 23:22).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서원이 실수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할지라도 꼭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신 23:23).

적용과 나눔 I

내가 하나님께 서원(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서원은 대체로 급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십일조를 드릴 것을 맹세했고(창 28:20~22), 한나는 기도해 첫아들 사무엘을 얻은 뒤 서원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삼상 1:11, 28).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이행해야 합니다(행 18:18).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아내의 서원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감당하게 하셨나요?(15절)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별말 없다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15절은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즉시 무효화하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원을 이행해도 좋다는 허락의 뜻을 보였다가(7~8절), 시간이 얼마 지난 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아내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감당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레 5:4~6).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엡 5:23) 하나님으로부터 아내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받은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가르치고, 당시에 교육 기회와 사회 경험이 적은 여자들이 함부로 서원했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적용과 나눔 II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내가 무리해서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경우는 없나요?

사사 입다는 무모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삿 11:30~40). 서원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무모한 서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어린 딸이나 아내의 서원은 권위자의 동의 아래 이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서원의 구속력과 이행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매우 경솔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레 19:12). 무분별하고 경솔한 서원과 자기 과시적인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원을 하기 전에는 지킬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